

2004년 1학기에 교수학습개발센터(글쓰기교실·학습지원부)는 〈학부생을 위한 토론 워크숍〉을 주관하였다. 워크숍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의 의견에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강연과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워크숍은 논증의 구조, 학술적 토론의 구조, 토론자의 역할, 화법에 관한 이론 강연과 실제 토론의 과정을 분석·평가하고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실습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2일에 허경호(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선생님의 〈아카데미식 토론〉에 관한 강연이 있었고 5월 19일에는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 중 4인이 2팀으로 나뉘어 토론 실습을 가졌고 다른 참가 학생들은 심사자로서 토론을 평가하였다. 강의와 실제 토론에 참여한 김이배 씨(사회복지학과)가 참가 소감을 썼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참가자의 소감과 평가를 통해서 토론 워크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은 워크숍을 위한 제안들을 얻기 위하여 이 소감문을 실는다.

토론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김 이 배*

1. 토론 워크숍 참가 동기

학부생을 위한 워크숍에 대학원생으로서 참가한다는 의미는 어쩌면 나의 토론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토론에 관해 수업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대학원 수업과정은 전반적으로 발제와 발제에 대한 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토론의 기회 자체가 부여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이 워크숍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우선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토론 기법을 얻기 위해서였다. 토론이라면 이미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해보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지만, 좀 더 아카데믹한 수준에서 토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토론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지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었다.

토론은 단순히 대화가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인 구술로 표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논쟁(debate)해야 하는 긴장을 지닌 과정이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이러한 긴장과 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토론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2. 토론 워크숍 첫째 날: 이론 강의

토론을 아는 것과 토론을 실제 해보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 깨달았다.

토론 워크숍은 이를 동안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은 이론 강의였다. 경희대 허경호 교수님의 강의는 먼저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중요성을 설명하셨고, 특히 많은 부분이 5월 하순 서울대에서 개최될 <전국대학생 토론회>의 토론방식에 대한 설명에 집중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첫 강의였다. 그 이유는 워크숍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참여 욕구와 동기가 토론회를 위한 토론형식 보다는 일반적인 토론을 상정하고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워크숍의 제목은 토론회 심사기준에 적합한 토론방식이 아닌 ‘아카데믹식 토론’이었다. 토론회를 위한 토론방식이 아카데미식 토론방식과 같더라도 참석자들이 오해를 할 것에 대비해 미리 구체적인 강의내용을 공지해야 했다. 그렇게 준비되었다면 더 좋은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다.

3. 토론 워크숍 둘째 날: 실습

둘째 날은 첫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중

심으로 진행되었다. 전반부는 <제1회 전국대학생 토론회>의 녹화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토론 채점자가 되는 것이었고, 후반부는 참석자 중에 토론팀이 나와서 직접 강단에서 토론 실기를 해보는 것이었다. 강의 첫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떨결에 손 때문에 나도 토론자로 선정되었다. 둘째 날, 전반부 시간의 녹화 비디오를 가슴 졸이며 시청하였다. 실기 논제는 예고된 대로 “정부는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였다. 첫째 날,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나의 토론 조는 위 논제의 반대 측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토론 자료를 준비하였고, 토론 순서에 따라 입론-교차조사-반박 순으로 토론 내용을 구성하였다.

토론 준비 과정과 실기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위 논제는 매우 시사적인 주제이면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였기에 토론 내용 준비에 있어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스크린쿼터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찬반 양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발표하였고, 결국 자료 싸움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었다. 더구나 발표된 자료는 그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과 당위를 혼동하고 서술한 내용도 있었고 인과 관계나 상관관계가 불분명한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찬성 측 입장에 있는 나로서는 그러한 자료의 한계를 덮어둔 채 찬성에 유리한 자료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토론자로서 강력하게 신념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찬반 측 중 어느 한쪽 입장만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것은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첫째, 토론회식 토론이기에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되풀이해야 한다는 점이고(예를 들어, 위 논제의 경우, 폐지 반대론자는 현행 스크린 쿼터제의 점진적 폐지조차도 수용하면 안 되는 입장이다), 둘째, 그렇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해야 한다면 과연 토론은 무엇이냐는 철학적 물음이 끊임없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물론 워크숍은 훈련 과정이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또한 허경호 교수님이 첫째 날 강의에서 말씀하시기를 “토론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닌 찬반 측이 나와서 어떤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내가 잘못 청취한 것 인지는 몰라도 토론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고, 자기주장만 계속 하여 대립된 입장을 지속시키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 보아 왔던 토론 문화와 크게 차이가 날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토론이 꼭 합의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주장 중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첫 번째 수업에서 해결되어야 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



‘정부는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 실습을 하고 있는 송재용 씨(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 좌)와 김이배 씨(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 우).

이 바로 토론 방식과 토론 테크닉 부분으로 급하게 넘어간 듯 하다.

실기 과정에서도 처음 해보는 시연의 미숙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상대방 측의 주장을 즉각적으로 반박하면서 발표된 내용을 논증하면서 순발력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다. 입론과 교차조사 그리고 반박 내용이 일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했고, 준비된 자료도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일부분만이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탓인지 다른 참석자들은 어떤지 몰라도 둘째 날 실습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4. 남은 문제와 제언

실습을 통해, 토론을 보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은 매우 다른 것임을 알았고, 토론은 역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예기치 못한 상황의 전개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토론 실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나의 토론판트너가 여러 사정으로 두 번씩이나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토론 전 입을 맞추고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생략되었고, 토론 시작 직전이 되어서야 간략하게 구성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 때문에 토론 구성이 엉성하게 되었고, 양질의 토론이 되지 못했다. 토론 팀 선정 과정에서 자발적인 학생이 거의 없었던 점도 못내 아쉬웠다. 토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토론 참여를 주저하였고, 선정되었던 발표자도 이런 저런 사정

으로 발표하기가 힘들다는 연락을 보내왔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학원생인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이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발성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 대부분이 논리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번 워크숍 같은 짧은 교육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졸업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런 워크숍의 기회마저 이용하지 않는다면, 졸업 이후, 사회에서 이러한 토론 기법들은 배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토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기 바란다. ◎